

『들뢰즈가 만든 철학사』 읽기 시즌1 - 4강 강의록
 휴과 루소의 철학, 어떤 민주사회를 만들 것인가

0.수직적인 신분사회에서 수평적인 민주사회(근대의 공동체)로의 전환

근대인들이 당면한 핵심 과제는 제국과 교회로부터 분리되고 개별화된 개인들이 어떻게 민주 사회를 구성하여 자유롭고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정치적 문제이다.

☞ 근대의 개인 =

ⓐ공통된 이성의 보유자(공공선 추구자) + ⓑ사적인 삶의 영위자(이기적 개인) :
 보편타당한 이성의 법 : 자연법(생명, 자유, 재산) 특정 지역의 관습법
 공공선.인권/ 보편타당한 질서 : 세계시민 특수 이익/개인이익 : 집단, 민족, 국가

개인이나 권력자가 이성의 법을 포기하고 특수한 이익만을 추구할 경우 사회적 무질서와 갈등, 폭력과 전쟁이 일어나게 된다.

<사회계약설(社會契約說) 비교>

	자연상태	사회상태	주권과 정부형태
홉스	만인에 대한 만인의 약육강식의 투쟁 상태/서로가 서로에게 이리인 상태(공포심·경쟁심·명예욕 등)	개인의 권리를 군주에게 일괄적으로 양도한 상태. 자기보존 본능의 천부적 자연권 실현.	군주주권/전제군주정(절대군주제), 계약 취소 불가능의 강제성·절대성-리바이어던(시민혁명권 부정)
로크	법이나 원칙이 아니라 본능과 욕구, 자기보존의 전반적인 명령에 따르는 상태. 도덕 관념이 없어서 자연권이 침해당할 수 있는 상태.	개인의 일부 권리(입법권, 집행권)를 대표자들에게 양도하고 기본 자유를 누리는 국민이 국가를 상대로 저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상태(자연권 일부 양도설)	국민주권/입헌군주제+대의제(간접민주정치)+삼권분립론(정부형태) : 계약의 상대성(국민저항권 인정)
루소	자유롭고 평화로운 상태(개인의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 행복한 상태) + 개인의 권리를 침해당하거나 박탈당할 수 있는 상태(도덕관념이 없는 자기보존의 상태).	문명상태는 시민들의 일반의지를 실현해 나가는(주권행사) 정치공동체 형성과 시민권력 창출 상태(도덕적 삶과 자유 획득이 가능). 재산소유 정도에 따라 타락, 불평등 발생상태. 일반의지 통해 자연권과 정의실현	국민주권/공화정(직접 민주정치/대의민주제) : 계약의 상대성(시민합의의 철회와 변경이 가능한 계약) + 주권 양도 불가능 (“일반의지를 거부하는 자는 욕망의 노예일 뿐이다!”/자유 의 강제)
공통점	사람들이 자연상태의 불완전함을 자각하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대표자에게 위임하자고 합의(계약)하여 국가(민주사회)가 성립됨. 국가의 존립 목적은 개인의 생명과 자유와 재산의 보호임.		

*가라타니 고진이 본 자본주의의 역사적 흐름 :

	~1810	1810~1870	1870~1930	1930~1990	1990~
세계 자본주의	중상주의	자유주의	제국주의	후기자본주의	신자유주의
헤게모니 국가		영국		미국	
경향	제국주의	자유주의	제국주의	자유주의	제국주의
자본	상인자본 (매뉴팩처)	산업자본	금융자본	국가독점자본	다국적자본
세계상품	섬유산업	경공업	중공업	내구소비재	IT/금융
국가	절대주의	네이션=스테이트	제국주의	복지국가	지역주의

『가라타니 고진이라는 고유명』(박가분, 자음과모음, 2014, 154쪽)

1. 데이비드 흄(David Hume, 1711~1776) 129쪽

(1) 경험주의의 의미

합리론 : 우리 관념 중에는 경험되지 않는 것(본유관념)이 있다는 입장이다.

경험론 : 우리 지식 중에 경험되지 않는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의미의 지시체가 감각적인 것이라는 입장이다.

흄의 인상=관념 :

인상 : 생생함, 직접 대면한 것.

관념 : 흐려진 인상

기억 : 인상의 순서대로 떠올림.

상상 : 인상의 분해와 종합. 지성의 힘은 자유롭다.

지식 생성의 길 : 개연성 있는 지식 만들기.

개연성을 확보하는 법칙(연상법칙) : 유사, 근접, 인과-사물에 대한 참된 인상을 알려줄 가능성(주관적 확신) 높은 지식.

경험주의의 진리 척도는 인상으로 소급해 들어가 그 원천에서 근거를 구하는 것이다.

▶ 흄의 경험주의 :

흄의 혁명 = [이론 = 칸트의 범정이 아닌 실험 : 철학적 반성의 본질]

흄의 경험의 세계는 미완의 공상과학의 영역 : 허구적이고 기묘한 어떤 낯선 세계(관념연합의 법칙이 만들어낸 세계)의 인상이다. 과학의 귀납적 방법의 핵심은 인과론인데, 인과론으로는 개연성만을 보여줄 뿐 필연성의 진리에 도달할 수 없다(흄의 문제). 귀납적 일반화는 논리적 근거가 없으므로, 과거와 현재의 경험들은 미래의 예측의 근거로 사용될 수 없다.

실험/ 실천-인식 차원/실천 차원

베르그송의 지속과 변화의 일치형식 :

a-a-a-a-a 종치는 소리 : 소리는 동일해도 감정적 의미는 다르다. 지속=변화.

-들뢰즈의 논점 : 연상법칙은 허구나 착각을 만드는 법칙이 될 수 있다. 허구도 주관적 확신을 가질 수 있다. 이는 라캉의 환상의 기능과 동일하다. 칸트의 형이상학적 가상은 착각(잘못된 신념과 확신)이 아니다. 진리 추구 가능. 통일적 자아(인격성)-관계, 소통 기능.

-경험과학. 진리는 아는데 진리를 가능케 하는 기능이다.

오류 : 잘못된 신념,

착각 : 잘못된 신념을 확신으로 가지고 있는 것. 두 번의 오류.

-사회계약론 : 인간은 이기적이므로 이기심을 제약해야 한다.

흄의 입장 : 인간은 편협하므로 새롭게 정의하고 실험해서 인간을 새롭게 발견해서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철학사는 합리주의와의 상관 관계 속에서 경험주의를 정의하였는데, 그 이유는 과연 관념 속에는 의미 속에 없는 무엇 또는 감각적인 것 속에 없는 무엇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하느냐 아니면 부정적 답변을 하느냐에 따라서 합리주의와 경험주의의 입장이 정의되었기 때문이다. 철학사는 줄곧 경험주의를 통해서 [합리주의의] 본유성과 선천적인 것을 비판하였다. 하지만 경험주의는 언제나 이와는 다른 비밀들을 간직하고 있었다. 흄이 자신의 극히 난해하고 섬세한 저서 속에서 가장 중요하게 문제 삼으며 명확히 밝히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경험주의의 비밀들이다. 흄은 또한 매우 독특한 경험주의의 입장을 보여준다. 그의 경험주의는 일종의 미완의 공상 과학에서처럼 다른 창조자에 의해 제시된 허구적이고 기묘한 어떤 낯선 세계의 인상을 받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이러한 세계란 이미 우리의 세계이며 또 이때의 다른 창조자란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예감을 받는다. [중략] 연합의 이론이라 불리는 것은 이처럼 관계들의 궤변 속에서, 법의 실천 속에서, 정치의 실천 속에서, 경제의 실천 속에서 자신의 종착지와 진리를 발견한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 같은 사실은 철학적 반성의 본성을 완전히 뒤바꾸어놓게 된다. (129~131쪽)

-흄의 습관론 : 사물들 간에 관계가 없다. 사물들 간 내재적 관계는 없고 그것을 바라보는 인간의 주관과 본성 속에 있다.

인과관계 : 반복현상 → 주관적 필연성

① 과거를 신뢰하기 때문에 그 믿음을 바탕으로 미래에 대처한다. 보수주의 방식.

② 허구를 만들어 실행해 구현하면서 산다. 들뢰즈의 관점.

흄의 관념 연합론 : 경험으로부터 획득한 인상이나 관념을 결합시켜 그 이상을 것을 얻는데, 그것은 관념연합의 산물이라는 이론. 인간의 의식 내용은 감각 경험으로 얻은 것들을 인간본성의 원리인 연합의 법칙에 따라 결합된 것들에 불과하다. 관계는 사물에 외적이다. 다른 사물로 이동 성향.

① 유사성의 원리 : 대상과 관념의 비슷함

② 근접성의 원리 : 시간과 공간의 인접성

③ 인과의 원리 : 시간상 선행 + 주관적 필연성 : a-b-a-b-a-b-a-c

경험에서 a와 b가 항상 함께 발견된다면 a가 b를 일으키는 원인이고, b는 a의 결과이다. 예) 비가 오면 땅이 젖는다. 습관에 의해 생겨난 주관적 필연성이다. 칸트는 순수이성비판에서 객관적 필연성을 논증하려 했다.

☞ 러셀의 주장 : 책이 떨어진다. 관계를 어떻게 볼 것인가. 외부에서 부여하는 a와 b의 연관성이냐./ 헤겔변증법처럼 자기관계는 타자관계다. b와의 관계 방식이 이미 a속에 있다는 식이다.

(2) 관계의 본성 132쪽

관계의 본성은 항들의 인상과 관념에 대해 외적이고 이질적이다. 사물 바깥의 주관에서 온 것이 관계성이다. 이러한 관계의 외성이 흠의 관념 연합론의 기본 틀이다.

정신의 이동 방식 : 정신의 이동방식은 연상의 법칙이다. 인간의 본성은 정신을 이동시키는 연상의 법칙이다. 따라서 관계는 사물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 속에 있다. 결론적으로 우리의 사고는 사물 자체가 아니라 우리의 자유의지에 의존한다.

에피쿠로스의 원자론 : 감각 원자론-무관한 원자들의 구성물

흠의 관념연합론 : 관계의 세계는 인간의 창작물 → 들뢰즈 해석 : 관계라는 새로운 허구를 만들면 새로운 세계를 창조 가능하다. 정치 통해 윤리까지 창조가 가능하다. 내재성의 논리 ↔ 초월성의 논리 : 우리가 어떻게 논의하든 진실과 진리는 따로 있다는 논리와 방법.

∴ 흠의 인식론 = ㉠원자론(정신의 물리학) + ㉡관념 연합론(관계의 논리학) = 참된 경험의 세계
따로따로 요소들의 무한운동 우연적인 결합(인위성)

관계는 관계 자신의 항들에 대해서 외적이다. 이 논제는 그것이 오로지 합리주의 철학이 행하는 모든 노력에 맞서서 대립될 때에만 제대로 이해될 수 있다. 왜냐하면 합리주의 철학은 관계를 관계의 고유한 항들에게 내적이게 만드는 방식을 발견하거나 또는 처음부터 관계 자체가 내적인 보다 포괄적이고 보다 깊은 항을 찾거나 함으로써 줄곧 관계의 역설을 줄이고자 노력해왔기 때문이다. [중략] 이 문제에서 흠은 다음과 같은 주장을 통해 보다 우월한 힘으로 경험주의를 이끌 반전[즉 경험주의의 중심 논제를 관념의 기원 문제에서 관계의 외성 문제로 되돌리는 반전]을 행한다. 관념이 감각되는 인상 속에 담겨 있는 것과는 다른 그 어떤 것도 지니지 않으며 또 그 이상의 그 어떤 것도 지니지 않는 이유는 바로 관계가 자신의 항들인 인상들 또는 관념들에 대해 외적이고 이질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차이는 이제 관념과 인상 사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두 종류의 인상 또는 관념 사이에, 즉 항들에 대한 인상 또는 관념과 관계에 대한 인상 또는 관념 사이에 있게 된다.

그리고 바로 이 점에서부터 경험주의의 전 영역에 걸쳐서 비로소 처음으로 참된 경험주의적 세계가 전개되기 시작한다. 즉 외성의 세계, 사유 자체가 외부와의 근본적인 관계 속에 놓인 세계, 참된 원자들인 항들과 참된 외적 이동들인 관계들이 존재하는 세계-접속사 “그리고et”가 동사 “이다est”의 내성의 자리를 빼앗는 세계, 그리하여 우리가 외적인 관계들에 의거하여 소통을 하는 그런 울긋불긋한 옷차림을 한 익살 광대의 세계, 잡동사니의 세계, 전체화가 불가능한 단편들의 세계가 전개되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흠의 사유는 이중의 장부 위에 기록된다. 즉 관념들 또는 감각적인 인상들이 도대체 어떻게 시간과 공간을 낚는 예리한 최소 단위들을 이루게 되는지를 보이는 원자론이라는 한 장부와 관계가 도대체 어떻게 항들에 대해 언제나 외적으로 머물고 다른 원리들에 대해 독립적으로 머물면서 동시에 이 항들 사이에서 성립하게 되는지를 보이는 관념 연합론이라는 또 다른 한 장부 위에 기록되는 것이다. 그의 사유는 말하자면 한편으로는 정신의 물리학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관계의 논리학인 것이다.

(132~134쪽)

(3) 인간의 본성 135쪽

인간의 본성은 연상법칙/ 이동방식, 관계방식 > 정신의 항구적 보편성(x)

인과성은 추론 : 인과 관계의 특징.

경험하지 않은 것을 추리하는 것이다.

과거의 관념 ----->경험할 수 없는 것을 추론(관념) :

주어진 것을 넘어서 새로운 관념에 도달한다.

<인과추리의 조건>

① 반복 : a-b, a'-b', a''-b''……

② 습관 발생 : a-b. 습관에 의해 a를 보면 b가 항상 잇달아올 것으로 본다. 지속적인/항구적인 결합 constant conjunction

③ 인과성 : 주어진 것을 넘어서게 하는 관계

① 최초의 자리이동 = [확신을 인식으로 이동시킴] : 구분되고 분리된 관념들을 상상 속에서 유사한 것들끼리 융합하여 '나는 ~을 예상한다'와 같은 습관을 구성하고 확신의 정도에 대한 계산으로서의 개연성이 생산되어 마침내 인과성이 작용하게 된다.

② 두 번째 자리이동 : 오류에 대한 전통적인 개념을 착란 또는 환각의 개념으로 대체해버린 것이다. [오류 개념 → 착란/환각으로 대체] 인간 본성의 원리인 연상법칙은 우연적인 허구와 착란의 이어짐에도 법칙을 부여해서 근거가 있는 허구와 착란의 연속으로 만들어버린다.

㉠ 착란을 제거해서 개연성 높은 지식으로 나아가는 것

㉡ 허구인데 허구임을 밝히는 경우

㉢ 허구인데 그게 본성이 맞다고 하는 경우 : 오류를 진리인 것처럼 받아들여야 하는 경우. 불법적인 확신의 경우, 즉 허구인데 진리라고 믿어야 하는 경우. 여기서 들뢰즈는 흄을 통해 플라톤의 이데아 인식론을 비판하고 있다. 허구인 것이 합법적인 진리인 양 등장하는 경우가 문제적이다.

불법적인 확신이 많을수록 외부가 아닌 우리들 자신의 본성에서 만들어낸 것이다. 우리 자신의 것이다. 엉뚱하고 웃기는 엉터리 관계인 흄의 해학 = 순수하게 우리가 꾸며낼수록 그것은 외부가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서 온 것이다. 이는 흄이 행한 근대적 회의주의를 보여준다. 고대의 아이러니는 소크라테스의 나는 모른다는 통해 안다는 것을 나타냈다는 점이다.

자아, 신, 세계 :

흄, 칸트의 형이상학의 대상 = 이념 ; 신, 세계, 영혼의 동일성. 우리가 이것을 목표로 세워놓고 지적 작업을 한다. 허구는 불법적 확신을 통해 이념을 만들어내고 이 이념을 통해 지식, 지적 작업을 얻는다.

관계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주어진 하나의 인상 또는 관념으로부터 출발해서 현실적으로 주어지지 않은 어떤 것에 대한 관념으로 이동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내가 ……과 “유사한” 어떤 것을 생각하는 경우, 도는 피에르의 초상화를 보면서 지금 여기에 있지 않은 피에르를 생각하는 경우가 그러하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 같은 이동의 이유를 결코 주어진 항 속에서는 찾지 못한다. 차라리 이러한 관계는 그 자체가 인접성, 유사성, 인과성 등 소위 연합의 원리들이라 불리는 것들로부터, 즉 정확하게 인간의 본성을 구성하는 원리들로부터 비롯된 결과이다. 인간의 본성이 의미하는 바에 따르면 인간의 정신 속에서 보편적인 것 또는

향구적인 것이란 결코 향으로서의 이러저러한 관념이 아니다. 보편적인 것 또는 향구적인 것은 오로지 하나의 개별 관념에서 또 다른 하나의 개별 관념으로 이동하는 방식들일 수만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흠은 형이상학의 최후의 커다란 세 관념인 자아, 세계, 신에 대한 계획과 파괴에 임하게 된다. [중략] 여기에서 흠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는 원인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원인의 결과라 할 관계의 작용에 관한 문제이며 또 이 작용의 실천 조건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중략]

즉 그것이 특이한 이유는 인과성이라는 것이 주어진 어떤 것에 대한 관념으로, 더 나아가 경험 속에서는 결코 주어지지 않을 어떤 것에 대한 관념으로 우리를 이동시키기 때문이다. [중략] 아울러 모든 경험은 그 자체가 곧 하나의 우연하고 특별한 것에 대한 경험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과성이란 달리 말해서 나로 하여금 주어진 것을 넘어서게 하는, 주어진 것 도는 주어질 수 있는 것 이상을 말하게 하는, 간단히 말해 **추론하고 믿게 하는**, 기다리게 하는, ……을 예상하게 하는 그런 관계를 가리킨다. 즉 [그 이전에는 전혀 의심하지 않았던 인과관계라는] 확신을 그 근본과 인식의 원리로 가져다놓은 바로 그 자리옮김이다. [중략] 이처럼 상상 속에서 이루어지는 명백히 구분된 경우들에 대한 관찰로서의 경험의 원리가 (인과) 관계를 생산해내기 위해, 또 이 [인과]관계를 따라 추론(확신)을 생산해내기 위해 서로 조합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 같은 [인과]관계와 추론을 따라서 마침내 인과성이 작용하게 된다. (135~137쪽)

(4) 허구 :

연합의 원리들이 착란을 제어하거나 상상의 허구들을 제어할 그 어떤 본성을 정신에게 부과하면서 정신을 고정시키는 것이 사실이라면, 역으로 상상은 자신의 허구들과 환상들을 이동시키기 위하여 그리고 이 허구들과 환상들에게 그들 자신의 힘으로는 소유하지 못할 일종의 담보[인간 본성의 원리들이 제공하는 확신과 유사한 자기 확신]를 부여하기 위하여 연합의 원리들을 이용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관계들 자체인 양 가장하는 일, 허구적인 관계들을 새로이 도출해내는 일,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광기를 믿게 하는 일은 허구에 속하는 일이다. 우리는 이 같은 사실을 [현재의] 이러저러한 경우에는 존재하지 않는 다른 관계들을 가지고서 현재의 모든 관계를 배로 증가시키는 환상의 타고난 재능 속에서 보곤 한다. 그러나 이 점을 보다 분명히 확인하는 것은 특히 인과성의 경우[보다 정확히 말하자면 환상이 자신을 위해 인과성의 원리를 이용하는 경우] 속에서도이다.

왜냐하면 환상은 그가 우연한 것과 본질적인 것을 혼동하거나, 또는 실재적으로 관찰된 유사한 경우들의 반복을 그 반복의 결과를 흉내낸 단순한 언어적인 반복으로 대체하기 위하여 언어의 속성을 이용하거나 함으로써, 어쨌든 허구적인 인과의 연쇄들, 불법적인 규칙들, 확신의 환영들을 만들어내고야 말기 때문이다. 거짓말쟁이가 거짓말을 반복함으로써 자시의 거짓말을 믿게 되는 일이 바로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며, 아울러 교육, 미신, 웅변, 시 등이 행해지는 것도 또한 이와 마찬가지로 방식을 따른다.

따라서 자연 자체에 의해서 확인이 되고 그에 해당하는 계산에 의해서 확인이 될 과학의 길 안에서는 우리는 더 이상 경험을 넘어서지 않지만 일종의 반-자연을 형성하며 아무것도 가리지 않는 융합을 보장하는 착란의 모든 방향 속에는 우리는 경험을 넘어서게 된다. 이처럼 환상은 연합의 원리들을 이용하지만, 그것은 연합의 원리들 자체를 휘젓고 그들에게 불법적인 확장을 제공하기 위해서이다. 이리하여 흠은 철학 속에서 또 하나의 커다란 두 번째 자리 옮김을 행하게 된다. 즉 그는 오류에 대한 전통적인 개념을 착란 또는 환각의 개념으로 대체해 버린 것이다. 이 자리 옮김에 따르면 틀린 확신이 아니라 차라리 불법적인 확신, 기능들의 불법적인 실행, 관계들의 불법적인 작용이 존재한다. 바로 이 점과 관련하여 나중에 칸트는 흠에게 본질적인 것(형이상학 비판)을 빚지게 된다. 흠에 의하면 우리를 위협하는 것은 오류가 아니다. 고약하기는 여전히 마찬가지로이지만 우리는 착란 속에 빠져 있는 것이다.

[중략] 하지만 환각 자체가 인간 본성의 일부를 이룰 때, 즉 불법적인 실행이나 확신이 교정될 수 없으며 합법적인 확신들과 분리가 안 되고 더 나아가 그들의 조직화에 필수적일 때 이때의 환각은 그 문제가 특별히 심각해진다. 왜냐하면 이 경우에는 인간 본성의 원리들의 환상적인 이용이 그 자체로서 하나의 원리가 되어버리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착란과 허구가 인간의 본성 쪽으로 이동해버리는 것이다. 흠은 이 같은 사실을 자아, 세계, 신의 관념에 대한 자신의 가장 섬세하고 난해한 분석 속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제기하고 답변함으로써 보여주게 된다. 신체의 실존을 명확하고 끊임없이 정립하는 행위, 나의 동일성을 정립하는 행위가 관계의 허구 작용들, 특히 인과관계의 허구 작용들을 그 어떤 허구도 교정이 불가능한 조건 속에서 작동시키는 일, 인간의 본성 전체를 구성하는 또 다른 허구들을 향해 우리를 몰아가는 그런 조건 속에서 작동시키는 일은 도대체 어떻게 일어나는 것일까. [중략] 물론 이 저서에서 흠의 해학은 인간 본성의 원리들의 관점에 비추어볼 때 확신은 불법적이면 불법적일수록 오히려 인간 본성의 더욱더 많은 부분을 이루게 된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데까지 나아가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의심없이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흠이 행한 **근대적 회의주의**라는 복잡한 개념을 꿰뚫어 볼 수 있다. 감각적이고 다양한 외양과 의미의 오류 위에 근거한 고대의 회의주의와는 달리, 근대적 회의주의는 관계의 위상과 관계의 외성 위에 근거한다. 근대적 회의주의의 첫 번째 막은 인식에 기초한 확신을 발견하는 일, 즉 확신을 굳건히 하는 일이었다(실증주의). 그 이후 두 번째 막은 불법적인 확신을 고발하는 일이었다. 즉 불법적인 확신이 실제로 인식을 생산하는 규칙들에 복종하지 않음을 고발하는 일이었다(개연주의, 개연성의 계산). 그러나 이제 그 세 번째 막에 이르러서는, 최후의 정교함에 의거하여 세계와 자아와 신에 대한 불법적인 확신이 [고발된 유죄로부터 벗어나] 도리어 가능한 모든 합법적인 확신의 지평으로서 드러나거나 또는 확신의 가장 기초가 되는 정도로 드러나게 된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확신이라면 심지어는 비-인식이라는 착란까지 포함해서 모든 것은 결국 확신의 정도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이리하여 근대적 회의주의의 덕목이라 할 흠의 해학이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이 행한 고대의 독단적 덕목이라 할 아이러니에 대립하게 된다. (137~141쪽)

(5) 상상 : 연상법칙과 정념의 관계 141쪽

주어진 것들을 넘어서는 원리인 관념의 연합을 이끄는 것은 감정적인 여건들, 즉 정념들이다.

정념 : passions 마음, 정신의 상태. 사로잡혀 그것이 모든 것이 된 상태.

열중 : 행동의 상태나 방식. 정념이 고착화된 한 가지 방식.

*칸트의 정념 : 도덕을 위해 제거해야 하는 것이다.

아담 스미스의 『도덕 감정론』 : 내부의 공평한 관찰자의 시선/눈으로 실천하기.

동감의 원리, 연민(憐憫)과 동정심(同情心)이라는 천성.

-정념의 근본 = 편파성 + 이기성(x) :

정념은 협약의 대상이다. 상징계의 성격과 역할의 차이 +주체의 자발성 여부.

이기성은 제한의 대상 :

계약 : 구속의 방식

협약 : 자유로운 유목적 방식

-계약론자의 관점 :

[정념의 핵심 = 이기성] → 사회 구성을 위해 법(=계약)을 통해 이기적인 정념을 제한하자. :

계약은 자연권 제약 방법 = 사회구성 방법

☞ 자연적인 사실 → 사회구성을 위해 필요한 것?/사회구성방법 : 정념의 이기성-정념의 제한 필요성(자연권 양도-의존과 구속의 방식)

-흠의 관점 :

[정념의 핵심 = 편파성(제한된 동정)] → 정념의 편파성을 넘어서는 창조를 위해 협약해야 한다./인위적인 수단을 발명해야 한다. :

인위적 수단의 발명이 사회구성 방법인 정치이다. 제한된 동정에서 자비로 전환하는 방법이 바로 사회구성 방법이다.

☞ 정념의 편파성-정념의 협약 필요성(자연권 발휘), 자발적 주체의 유목적 방식

: 발명하는 종으로서의 인간

하지만 인식에 관한 실험의 원리와 결과가 이와 같이 회의주의라는 사실, 인식에 관한 실험이 이와 같이 허구와 인간 본성 간의 풀 수 없는 뒤섞임에 이른다는 사실은 아마도 인식에 관한 실험 자체의 일부분, 그것도 중요치 않은 부분만을 재현한 것일 것이다. 왜냐하면 연합의 원리들은 사실 정념(passions)과 관련해서만 그들의 의미를 지니기 때문이다. 실제로 관념의 연합을 이끄는 것은 감정적인 여건들이며, 아울러 관계 자체 또한 정념의 작용에 따른 의미, 방향, 불가역성, 배타성을 할당받는다. 간단히 말해서 관계가 비롯되는 연합의 원리들만이 아니라 “성향”이 비롯되는 정념의 원리들 또한 인간의 본성을 구성하는 것, 정신에게 본성 또는 내용을 제공하는 것이다. [중략]

그러나 [정신으로 하여금 주어진 것을 넘어서도록 하는 연합의 원리들과는 반대로] 정념은 차라리 정신의 입구를 제한하며 정신을 특권이 부여된 관념들과 대상들에 고정시킨다. 왜냐하면 정념의 근본은 이기주의는 아니지만, 이기주의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고약한 **편파성**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우리는 그 누구도 우리의 부모, 우리와 가까운 이들, 우리와 유사한 이들에게 열중한다(제한된 인과성, 인접성, 유사성). 물론 우리가 만약 이기주의에 의해 지배된다고 한다면, 편파성에 의한 지배보다 문제가 훨씬 더 심각해진다. 왜냐하면 이기주의는 사회 자체를 가능케 하기 위하여 우리들에게 오로지 제한받을 것만을 요구할 것이기 때문이다. 16세기에서부터 17세기에 걸친 그 유명한 계약 이론들이 계약 사회의 모태가 된 자연권의 제한 문제 또는 자연권의 포기 문제를 제기하기에 앞서서 사회문제를 그것보다 우선적인 문제로 제기했던 것은 이런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흠이 인간이란 본성상 이기적이 아니라 편파적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여기에서 어휘들에 담긴 단순한 뉘앙스가 아니라 사회문제의 실천적인 정립에서 그 어떤 근본적인 변화를 보아야 한다. 즉 문제는 이제 더 이상 이기주의와 해당되는 자연권을 어떻게 “제한된 동정”으로부터 “확장된 자비”로 이동하며, 과연 어떻게 정념을 펼쳐서 정념에게 정념 자신의 힘으로 소유하지 못할 자기 확장을 제공하는가가 되는 것이다. 이리하여 사회는 더 이상 법률적이고 계약적인 제한의 체계로서 고려되는 것이 아니라 제도적인 발명으로서 고려되게 된다. 어떻게 [정념의 근본인 편파성을 풀어헤칠] **인위적인 수단들을 발명할 것인가.** 어떻게 정념으로 하여금 그의 편파성을 넘어서도록 강제하는 체제와 (예를 들어 정의감과 같은) 도덕적, 법률적, 정치적 감정 등의 많은 감정을 형성하는 체제를 창조할 것인가? 우리는 여기에서 흠의 계약과 협약 또는 계약과 인위적인 수단 사이에 세우고 있는 대립을 본다. 분명히 흠은 18세기의 사회학을 여전히 지배하고 있었던 계약과 법이라는 제한적임 모델과 결별하면서, 그것에 맞서서 인위적인 수단과 체제의 적극적인 모델을 대립시킨 최초의 철학자이다. 이리하여 마침내 인간에 대한 모든 문제가 그 자리를 바꾸게 된다. 인간의 문제는 더 이상 인식 속에서 보았던 허구와 인간 본성 간의 복잡한 관계에 머물지 않는다. 즉 인간의 문제는 이제 인간 본성과 인위적인 수단 사이의 관계로 넘어가는 것이다(발명하는 종으로서의 인간). (141~144쪽)

(6) 정념

-인식 : 인간본성의 원리들-확장, 넘어섬의 규칙/ 환상-흠내내기로 이동]계산 타악기 방식 :

① 반성 :

② 울려퍼짐 : 슬픔 → 기쁨의 전화방식의 무한한 놀이

③ 제한 넘어서기

☞ 확장된 정념의 문제점 :

㉠ 덜 생생함 → 법, 제도로 환기 가능

㉡ 임의적이라서 불확실성이 크다. → 연상법칙 통해 임의성 제거 가능

-확장된 정념의 두 가지 결함과 해결책 :

㉟ 현실적인 정념보다는 덜 생기적이라는 결함 ⇒ 사회적 권력의 심급들 속에서, 제재와 보상과 처벌의 장치 속에서 정념에게 어느 정도의 생기와 보충이 되는 확신을 부여하여 해결한다. 주로 정부가 해당되고, 아울러 관습과 양식의 심급들처럼 좀더 은밀하고 함축된 심급들 또한 해당한다. 이런 점에서 흠은 대표성이 아닌 신뢰성의 표현을 빌려 권력과 정부의 문제를 제기했던 최초의 사람들 중의 한 사람이다.

㊱ 자신의 약화된 이미지를 모든 의미로 투사하여 그 자체가 완전히 비결정적이라는 결함 ⇒ 관념 연합론을 통해 해결된다. 연합의 원리들에 의해서 고정되거나 순화된 상상과 환상 속에서는 인식과 대상의 관계인 모든 관계(유사성, 인접성, 인과성)가 상상 속에서 반성되는 감정들을 결정하기 위한 일반 규칙들을 우리에게 이미 제공하고 있는 셈이다.

-근접의 인과 법칙 :

소유권이나 정치적 문제는 연상법칙의 문제 → 흠의 철학의 연상법칙은 정치와 직결된 문제 : 정당성, 타당성을 가르치는/판별하는 기본이 바로 연상규칙에 의거해 주장
연상법칙은 정치 영역까지 확대되어야 그 의미를 완전하게 규명 가능하다. 연상법칙은 인간 관계, 사회규칙을 발명하는 규칙, 기술, 수단이기 때문이다.

인식 속에서는 인간 본성의 원리들 자체가 확장 또는 넘어섬의 규칙들을 세웠던 반면, 환상은 확신을 흉내낸 것들을 이동시키기 위하여 이 규칙들을 이용하였다. 따라서 인식 속에서는 교정을 위한 계산, 합법적인 것과 불법적인 것을 가리기 위한 그 어떤 계산이 부단히 요구되었다. 그러나 이제 정념 속에서는 다음에서 보는 것처럼 문제가 다르게 제기된다. 과연 어떻게 인간 본성의 편파성을 넘어서는 인위적인 확장을 발명할 수 있는가? 환상 또는 허구가 새로운 의미를 취하게 되는 것은 바로 이 같은 질문 속에서이다. 흠에 따르면 정신 또는 환상은 정념에 대하여 관악기의 방식이 아닌 타악기의 방식으로 작용한다. 즉 정신 또는 환상은 “각각의 타격 이후에 점진적이고 비감각적으로 사라져가는 소리를 진동이 여전히 유지하는” 방식으로 정념에게 작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결국 정념을 반성하고, 정념을 올려 퍼지게 하며, 정념으로 하여금 자신의 자연적인 편파성과 현실성이 갖는 제한을 넘어서게 하는 것은 [환상 또는 허구가 그 속에서 활동하는] 상상에 속하는 일이다. 흠은 어떻게 [정념의 편파적인 제한을 넘어서] 미적 감정과 도덕적 감정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를 보인다. 그에 따르면 우선 상상 속에서 반성되는 정념은 곧 상상의 정념이 되어 버린다. 그리하여 상상은 정념을 반성하면서 정념을 풀어놓아 자유롭게 하고, 정념을 무한히 잡아 늘이며, 정념을 그의 자연적인 제한 너머로 던져버린다. 하지만 우리는 최소한 한 가지 점에 대해서만큼은 위의 타격의 은유를 바로잡아야 한다. 왜냐하면 정념은 상상 속에서 올려 퍼지면서, [타격된 소리처럼] 점진적으로 덜 생기적으로 되며 덜 활동적으로 되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비극에서 재현되는 정념인 슬픔이 상상이 행하는 거의 무한한 놀이의 기쁨 속에서 스스로 바뀌는 것과 마찬가지로 결국에는 정념 자신의 색조와 소리를 바꾸어버리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정념이 새로운 본성을 취하며 새로운 형태의 확신을 동반하게 되는 것이다. [중략]

상상 속에서 이루어지는 정념의 이 같은 울려퍼짐과 반성, 바로 이것이 인위적인 수단의 세계 또는 문화의 세계를 구성하는 것이며, 바로 이것이 문화를 가장 경박하면서도 가장 배려 깊게 만드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문화적 형성에서 보게 될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결함은 어떻게 피할 것인가? 즉 확장된 정념은 비록 그 자신이 이전과 다른 본성을 갖게 된다고 할지라도 어쨌든 현실적인 정념보다는 덜 생기적이라는 결함은 어떻게 피할 것이며, 또 확장된 정념은 자신의 약화된 이미지를 모든 규칙을 벗어나 모든 의미로 투사한다는 점에서 결과적으로 그 자체가 완전히 비결정적이라는 결함은 어떻게 피할 것인가? [중략] 연합의 원리들은 이처럼 문화 세계와 권리 세계의 세부적인 내용을 결정짓는 관계의 궤변 속에서 그들의 참된 의미를 발견한다. 그리고 비로 이것이 흠의 철학의 참된 대상을 이룬다. 즉 그의 철학의 대상은 법적, 경제적, 정치적 활동과 이를 위한 실천 수단으로서의 관계들인 것이다. (144~147쪽)

(7) 대중적이고 과학적인 철학

흠의 대중철학 : 관념의 명석함이 아니라 관계와 작용의 명석함을 보여주는 대중철학이다.
확신의 정도를 분배하는 회의주의의 이름 아래 묶어두는 방식 + 지배적인 흐름과의 결별까지 포함한 결별의 방식

흠은 매우 조숙한 철학자이다. 그가 자신의 위대한 저서 『인간 본성론』(1739~1740년 사이에 출판)을 저술한 것은 그의 나이 스물다섯 무렵이다. 이 저서에서는 철학의 새로운 태도, 그리고 논쟁의 거대한 복잡성을 벗어난 뛰어난 단순성과 엄격함이 허구의 실행, 인간 본성의 학, 인위적인 수단의 실천을 동시에 다루고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그의 철학은 대중적이고 과학적인 철학, 곧 대중 철학이다. 그리고 그가 여기에서 이상적인 것으로 여기는 확고한 명석함은 관념의 명석함이 아니다. 그것은 관계와 작용의 명석함이다.
(147~148쪽)

7. 카프카, 셸린, 풍주의 선구자, 장 자크 루소

-위대한 작가를 오해하는 2가지 방식

- (1) 작가의 깊은 논리나 작품의 체계적 성격을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 :
- (2) 최대한의 반순응주의적 효과를 내게 하는 작가의 숨겨진 해학을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 : 작가의 희극적인 천재성을 인지하지 못함으로써 개그를 다큐로 믿는 방식

예) 루소의 자연상태

자연상태 : 인간과 사물의 관계, 고립, 악이 없는 상태 → 선/ 독립의 상태 + 고립의 상태

결정된 사회상태 : 인간과 인간의 관계, 이익추구, 압제된 관계/상태, 악 발생

→ 이익추구=공민의 상태, 경제 관계/

루소는 자신의 가장 유명한 논제들 중의 한 논제에서 자연 상태에서의 인간은 선하다는 것을, 적어도 악하지 않다는 것을 설명한다. 물론 루소의 이 설명은 마음 깊은 곳에서 우려난 [감상적인] 제안도 아니요 낙관주의를 표명한 것도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명백한 논리요 극도로 엄밀한 논리이다. 루소는 다음과 같은 것을 말하고자 한다. 우리가 자연의 상태 속에서 가정하는 인간은 악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자연 자체 속에는 인간의 악함과 그 악함의 실행으로 가능케 하는 객관적인 조건들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자연의 상태는 인간이 사물들과 더불어 관계에 놓이는 상태이지 결코 인간이 다른 인간들과 더불어 관계에 놓이는 상태가 아니다(물론 이때 [인간들 간의] 순간적인 [만남의] 방식은 제외한다). 루소는 말한다. “인간들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면, 만남 속에서 서로를 공격하였다. 하지만 그들은 거의 만나지를 않았다. 도처에서 전쟁의 상태가 지배하였지만, 지구 전체는 평화로웠다.” 자연의 상태는 이처럼 독립된 상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고립의 상태까지도 말하는 것이다. 실제로 이 점과 관련된 루소의 항구적인 논제들 중의 하나가 곧 필요는 (인간들 간의) 접근의 동인이 아니냐라는 논제이다. 즉 필요는 인간들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인간 각자를 고립시킨다는 것이다. 자연의 상태에서 우리의 필요들은 그 필요들 자체가 [충족의 여건상] 제한되어 있다는 점에서 필연적으로 우리의 능력과의 균형 속으로 들어가며, 결국에는 일종의 자족을 획득한다. [중략]

그렇다면 그 조건들이 이처럼 결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어떻게 해서 악하게 되는 걸까? 사실 인간의 악함을 가능케 하는 조건들이란 결정된 사회적 상태와 다른 것이 아니다. 악한 사람들과 어리석은 사람들이 가끔 무어라고 말하든지 간에, 결코 무관심한 악함은 존재하지 않는다. 말하자면 모든 악함은 [무엇인가에 대한] 이익 또는 보상인 것이다. 그리고 모든 인간적인 악함은 복잡한 사회적 이익들에 맞추어서 압제의 관계 속으로 들어간다. 루소는 압제의 관계, 그리고 이 압제의 관계가 전제하는 사회적 구조에 대한 분석을 확신했던 작가들 중의 한 사람이었다. 폭력과 압제가 최초의 사실을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결정된 사회적 구조 속의] 공민의 상태, 사회적 상황들, 경제적 결정들을 폭력과 압제보다 선행하는 것들로 가정하는 이 엄격한 루소의 논리를 우리는 나중에 앵겔스의 등장과 더불어 재차 상기하고 새로이 하게 될 것이다. [소설 속] 로빈슨이 방드르디[로빈슨이 금요일에 만났다 하여 금요일이라 명명한 원주민 청년]을 자신에게 예속시켰다면, 그것은 [로빈슨과 방드르디의] 자연적인 취향에 따라 그런 것도 아니요, 로빈슨의 주먹 힘에 근거한 것도 아니었다. 그것은 단지 로빈슨이 물에서 건져낸 약간의 자본과 생산수단들 때문에 그런 것이었으며, 또 난파당한 로빈슨이 결코 잃어버리지 않고 있었던 관념인 바로 그 [결정된] 사회적 과업들에 방드르디를 종속시키기 위해 그런 것이었다.

지속적으로 사회는 우리가 악함으로써 이익을 얻게 되는 상황 속으로 우리를 몰아간다. 우리는 허용심 때문에 우리가 본성적으로 악하다고 믿기 쉽다. 그러나 진실을 보자면 상황은 이보다 훨씬 더 고약하다. (149~151쪽)

-압제된 관계 = 악함으로써 이익을 얻게 되는 상황(고결한 영혼의 운명-고약한 상황). 예) 상속자와 상속인의 관계와 같은 사회적 관계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루소의 덕으로서의 사람의 꿈 : 잃어버린 삼각관계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는 것.

바랑 부인과 루소의 관계(사랑하는 여인이 아버지 또는 오빠 같은 다른 남자를 사랑하는 경우), 테레즈와 그녀의 어머니-(체벌을 주는 엄한 어머니/자신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아주 포근한 어머니와 같은 경우)

우리가 악하게 됨으로써 이익을 얻게 되는 상황을 과연 우리는 어떻게 피할 것인가? 물론 강한 영혼이 의지 행위에 근거하여 상황 자체 위에 작용하면서 그 상황을 변경시킬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아버지의 죽음을 바라는 상황에 빠지지 않기 위해 상속의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가 그렇다. [중략] 하지만 이때의 해학, 즉 왕의 은급의 수혜자가 되기보다는 차라리 악보를 베끼는 필경사가 되기를 선택한 해학은 분명히 도덕의 이면에 해당하는 해학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루소는 『신엘로이즈』에서 상황의 위험스러움을 피하는 데 적합한 길이 있는 방법을 공들여 세운다. 그에 따르면 상황은 오로지 상황 자체만으로 우리를 유혹하지 않는다. 상황은 그 상황 속에 구현된 과거의 모든 무게와 더불어 우리를 유혹한다. 우리의 열정에, 가장 난폭한 우리의 유혹에 영감을 불어넣는 것은 현재의 상황 속에 녹아 있는 과거의 추구, 과거의 반복인 것이다. 실제로 사람들이 사랑하는 것은 언제나 과거 속의 무엇이며, 열정 또한 무엇보다도 먼저 기억에 고유한 질병이다. [중략] 결국 우리가 시간으로부터 빠져나오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 그리하여 마침내 우리가 과거 속에서 들뜨는 것이 아니라 미래 속에서 원하는 법을 알게 되는 것은 이처럼 대상과의 관계 속에서, 장소와의 관계 속에서, 즉 위의 예를 빌려 말하자면 작은 숲과의 관계 속에서이다. 루소가 “현자(賢者)의 유물론”이라고 불렀던 것 또는 현재를 가지고 과거를 덮기라고 불렀던 것이 바로 이것이다.

루소의 철학 작품을 이루는 두 축은 『에밀』과 『사회계약론』이다. 근대사회 속의 악, 그것은 우리가 더 이상 사적인 인간도 아니요, [공적인] 시민도 아니라는 것, 즉 인간은 더 이제 [결정된 사회구조 또는 상태 속에서] “경제적 인간”, 돈에 의해 활기를 부여받는 “부르주아”가 되었다는 사실이다. 우리가 악해짐으로써 이익을 얻는 상황은 언제나 압제의 관계를 함축하는 것이다. 『에밀』은 사적인 인간을 다시 확립하는 일을 겨냥하고, 『사회계약론』은 [공적인] 시민을 다시 확립하는 일을 겨냥한다. 루소의 첫 번째 교육 원칙은 다음과 같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적인 인간으로 형성할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사물과의 자연스러운 관계를 회복하면서부터이다. 사물과의 이 관계의 회복을 통해서 우리는(타인에게) 명령을 내리고자 하는 위험스런 경향을 어릴 적부터 우리에게 제공하는 너무나도 인간적이고 인위적인 관계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고 예방할 수 있게 된다.(그에 따르면 우리를 노예로 만들고자 하는 경향과 우리를 독재자로 만들고자 하는 경향은 사실 동일한 경향이다.) 루소는 말한다. “타인에게 복종을 요구할 권리를 스스로에게 부여함에 따라서, 어린이들은 거의 태어나는 순간부터 자연의 상태에서부터 떨어져 나온다.” 따라서 진정한 교육의 재건은 인간들의 관계를 인간이 사물과 유지하는 관계에 종속시키는 일에 있다. 실제로 사물로서의 이 같은 취향은 루소의 작품에서는 항구적인 것이다(이 점에 있어서 프랑시스 풍주가 보인 실천 또한 루소적인 어떤 것을 지닌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사실로부터, 오로지 운동 교육만을 요구하는 『에밀』의 그 유명한 다음과 같은 원칙이 비롯된다. 결코 아이에게 사물을 가져다주지 말아라. 반대로 아이를 사물에게까지 옮겨놓아라.

이처럼 사적인 인간이란, 약함으로써 이익을 얻게 되는 유치한 상황을 자신이 이미 사물과 유지하고 있는 관계를 통해 피한 인간을 말한다. 반면에 (공적인) 시민이란 인간들과 더불어 그가 덕스러움으로써 이익을 얻게 되는 바로 그런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인간을 말한다. 루소에게 있어서 정의와 이익이 서로 화합하는 객관적이고 현실적인 상황을 확립하는 일은 고유하게 정치적인 과업으로 보였다. 그리고 바로 이 정치적인 과업 속에서 덕은 덕 자신의 가장 깊은 의미를 만나게 된다. 즉 시민에 대한 공적인 규정을 가리키는, 덕 자신의 가장 깊은 의미를 만나게 되는 것이다. 말할 것도 없이 『사회계약론』은 분명 위대한 정치철학 책들 중의 하나이다. 사실 루소의 생일을 기념하는 날은 단지 『사회계약론』을 읽거나 다시 읽을 기회밖에 안 된다. 그러나 시민은 이 『사회계약론』을 통해서 분권이라는 기만이 어떤 것인지를 배운다. 즉 공화국이 어떻게 해서 유일 권력인 입법권의 실존에 의해 정의되게 되는지를 배우는 것이다. 우리가 루소에게서 보는 그 모습 그대로의 법 개념에 대한 분석은 루소 이후 오랫동안 철학적인 반성을 지배해왔으며, 또 지금도 여전히 지배하고 있다. (158~160쪽)

- ① 『에밀』: 인간성 회복(참된 인간의 모습=자연)을 위한 교육의 필요성 주장
- ② 『사회계약론』: 모순된 사회제도와 정치체제의 개혁(자유와 평등=자연을 보장하는 이상적인 민주주의)을 주장
- ③ 『신엘로이즈』: 상황 자체를 변경하는 방법. → 상속의 사례 : 상속의 포기를 통해 상황 바꾸기. 중세의 신학자 아벨라르와 그보다 20살 연하의 여성 엘로이즈가 나누었던 정신적 사랑의 편지.

질리(귀족의 딸) - (결혼) 드볼마르(아버지가 선택한 남자)
↓(사랑)
생-프리(가난한 평민 출신 가정교사)

포기 통한 상황 변경 방법 : 유산 포기 + 과거의 사랑 포기 : 부정적 행위의 기능=상황, 판을 붕괴시키는 방식 → 저항, 거부는 외려 상황을 구성한다.

-근대적 상황의 극복 방법 : 새로운 인간의 형성

* 경제적 인간 : 근대 사회의 결정된 사회구조 속에서 약해짐으로써 이익을 얻는 상황.

- ① 사회적 인간 확립 : 『에밀』- 사물과의 관계를 통해, 약함으로써 이익을 얻게 되는 유치한 상황을 피한 인간. 루소의 자연교육.
- ② 공적인 시민 확립 : 덕스러움으로써 이익을 얻게 되는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인간.